

### 이흥재의 세상만사



남매는 모두 미혼으로 무직이었다. 아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시에 실패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고 한다. 딸은 몇 년 전까지 교회에서 일했지만 최근에는 무직 상태다.

이들 40대 남매가 광주에서 늙은 아버지(78)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어머니날에 그런 일을 자행했다. 충격이다. 자식들은 왜 카네이션 대신 혼자 사는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꽂았을까.

우선 아버지에 대한 중요성이다. 아들(43)은 경찰조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행에 시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을 저지른 딸(47)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어머니를 아버지가 돌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범행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의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후 새로운 여자 친구(75)를 사귀고 있다. 경찰은 “남매가 최근 아

버지를 찾아와 아파트 문서를 달라고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를 보면 이들 남매가 상속받고 싶은 아파트를 새로 사 권 아버지의 여자 친구에게 빼앗길까 봐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패륜(悖倫) 사건은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과 재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참으로 말세로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정치·도덕·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이 바로 말세(末世) 아닌가. 며칠 전에는 경기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을 잡고 보니 너무도 멀정하게 생긴 청년이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왜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 하필이면 어머니날에

아무래도 늘어나는 청년실업에, 40대 고용 감소 폭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할 만큼 모든 것이 엉망인 헬조선(Hell+朝鮮 :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 미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세상이 되고 만 것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이라고 발표한 통계 자료도 있고 보면, 급격히 진행되는 노령화사회의 폐해가 벌써부터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는 인간관계

## 너는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를 새로 배우고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1순위로 할 일이다”라는 고광애(78) 노년 전문 저술가의 말에 공감이 간다. 영화감독 임상수 씨의 어머니이기도 한 고 여사는 ‘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2015)라는 책에서 자식의 효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효심 총량 불변의 법칙’을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 여든 살을 코앞에 둔 고 여사는 “내 딸의 효심 총량이 소진되어 지치지 않게 봐 주는 백 살을 사는 게 걱정스럽다”고 토로하면서, 자식들 효심의 총량이 고갈돼서 힘들지 않게 해 주는 것이 100세 부모들의 할 일 아니냐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 줄 ‘역 효도’라는 충고다.

중국의 고전인 ‘예기’(禮記)에는 50세를 애(艾), 60세를 기(耆), 70세를 노(老), 80~90세를 모(耄)라고 했다. 이 중에서 50세를 말하는 애(艾)는 속 ‘애’ 자이니, 머리털이 썩처럼 허영게 세었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불로초를 찾아 해맨 진시황이 바로 애년(艾年 : 50세)에 사망했는데 하지만 수명이 길어진 지금, 50~60세는 경로당에서도 아예 받아주지 않을 정도다.

20세기 이후 수명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노년이 길어지자 최장수국 일본에서는 한때 ‘0.7 곱하기 나이 선행’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의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 실생활 나이로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선행하면 50세는 고작 35세, 60세는

42세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유엔의 새 연령 분류에 따르면 17세 미만은 미성년, 18~65세는 청년, 66~79세는 중년, 80~99세가 노년, 그리고 100세부터가 장수 노인이다. 수명 연장은 과연 축복인 것일까. 사람이 90세가 넘도록 오래 살게 됐다며 마냥 좋아해도 되는 것일까. 요즘 같이 ‘헬 조선’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생명 연장은 말라 죽는 고통의 기간 연장 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장년기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노년기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 노인도 살기 힘든 세상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4월은 가장 잔인할 달’이라고 읊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든가. 신에게 영생을 약속받았으나 젊음을 유지해 달라는 소원은 잊었던 까닭에, 점점 늙고 쪼그라들며 작은 병 속에 갇힌 무녀(巫女). 그녀의 소원은 ‘고통의 끝’이었지만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생생의 순환이 없기에, 만물이 소생하는 4월마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노인빈곤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신화(神話) 속의 무녀처럼 참담하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신을 위해서는 모은 돈 한 푼 없이 비참한 여생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어렵게 살면서도 부모를 봉양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과 딸

어저서 고독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지공선사’(지하철 공차 승객)의 나이가 내일모레이니, 조금 과장이겠지만 꼭 남의 일 같지만 앓게 느껴지는 것이다.

노인들은 “너는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다.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란 말은 백번 옳지만, 노인의 발언은 눈으로만 해야 된다고도 한다. 오죽하면 노인이 되면 ‘입은 닫고 지갑만 열려라’는 말이 있겠나.

노인들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은 경로당부터 유세를 시작하지만, 나라도 외면하고 자식들도 가까이 받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비록 빈손일지언정 그래도 무언가 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선생은 95세 되던 해에 여학 공부를 시작했다.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강 선생은 지난해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세상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떠날 적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가져갈 것 하나 없는 빈손이요, 동행해 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다 쓰고 남은 쥐꼬리만 한 돈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쓰면서 인생을 건 강하게 후회 없이 살다 가야 할 텐데... <주필>

## 광주 하루 34명 출생·22쌍 결혼

### 市, 2015 시정통계 발간

지난해 수출 153억달러

인구 149만647명

의료기관 2000개 돌파

“하루 평균 34명 출생, 20명 사망”

광주시가 12일 내놓은 시정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34명이 태어나고, 20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22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반면 8쌍은 부부의 연을 끊었다.

물 사용량은 40만t(40만㎥)에 이르고, 시간당 전력사용량은 2만2832MW,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류는 하루 2709㎥, 무게로 따지면 2709t을 소비했다. 도시가스는 157만1000㎥가 사용됐다.

물 사용량은 40만t(40만㎥)에 이르고, 시간당 전력사용량은 2만2832MW,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류는 하루 2709㎥, 무게로 따지면 2709t을 소비했다. 도시가스는 157만1000㎥가 사용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를 통틀어 하루에 처리된 민원서류는 3572건에 이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130만3780건이나 됐다. 지방세는 하루 42억5700만원이 징수됐다. 1256명이 광주로 이사를 오거나 떠났으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

#### ■광주의 하루

출생	34명
사망	20명
결혼	22쌍
이혼	8쌍
물 사용량	40만t
전력 사용량(Wh)	2만2832㎾h
석유류 사용량	2709㎥
처리민원	3572건
자동차등록	60대
생활폐기물	1316t
대중교통이용	44만3천명

은 44만3000명이었다.

자동차는 하루에 60대씩 새 번호판을 달았으며, 건축허가는 하루 평균 12개동이었다.

화재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2014년 기준)은 하루 1316t이 발생했다. 5t트럭으로 260대분에 달한다.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기반 시설도 확충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49만647명으로 남자가 73만9676명, 여자는 75만971명으로 1만1295명이 많았다.

세대수는 58만427세대다. 구별 인구는 동구가 9만9883명, 서구는 30만6717명, 남구 22만2741명, 북구 45만749명, 광산구 41만557명이다. 동구는 북구나 광산구와 비교해 4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공무원 수는 7380명으로, 1인당 행정수요가 202명에 이른다. 2011년보다 659명 증가했다. 여성 공직자는 2495명으로 3명당 1명 꼴이다. 요양병원 등의 수요자 늘면서 의료기관은 2012개로 처음으로 ‘2000 시대’를 열었고, 병상수도 3만5893개로 4년 전보다 1만개 늘었다.

불량형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은 15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이어오던 상승 곡선이 꺾였다. /최권일기자 cki@

####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광주 65세 月 187만원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매달 얼마를 받을까? 최고령 수급자는 몇 살일까?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나 2015년 10월말 현재 377만명(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소득활동 종사 따른 금액연금 수급자 제외)에 달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2015년 기준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광주에 사는 A씨(65세)다. A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고,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월 187만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아빠 육아휴직 늘다고? 전남은 남 얘기

1분기 21명 전년비 12.5% ↓

전국 57.3% 증가 대조적

中企 많고 보수적 정서 탓

올해 전남지역 직장인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든 반면 광주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확산 추세에 있지만 전남의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은 아직까지도 ‘그림의 떡’인 셈이다.

12일 전남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지역 직장인 남성 육아휴직자는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보다 12.5% 감소했다. 광주는 올해 1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명보다 15.4% 늘었다.

올해 1분기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가 13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8명보다 57.3%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국 13위)의 육아휴직률은 전국 평균보다 꽤 낮은 수치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전년대비 33.3% 감소)과 함께 육아휴직률이 감소한 광역단체로, 나머지 15개 광역단체의 육아휴직률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이 전남 육아휴직률이 감소한 이유

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은데다 보수적 성향이 짙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전국 육아휴직 증가율을 보면 100명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115.4% 증가한 반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18.3% 늘었다.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달’ 제도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소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결국 대체 인력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는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운영 중인 ‘아빠의 달’ 제도는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3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급여 지원기간이 1개월이었지만 올해 3개월로 늘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발표 : 2016. 6. 14(화)
-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례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뀐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문외한이면 지혜만 안배로 몸부림쳐도 안됩니다.